

주민환경운동과 사회적 자본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배수지건설반대운동’을 사례로

김 상 민

본 연구는 신뢰, 네트워크, 사회적 규범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자본이 주민환경운동과 상호작용하면서 누적적으로 증진된다는 것을 마포구 ‘성미산배수지건설 반대운동(이하 성미산운동)’을 사례로 분석한 연구이다. 성미산배수지건설 반대운동은 10여년에 걸친 생활문화운동(공동육아, 생활협동조합)의 배경을 갖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결속감을 증진시킬 수 있었던 성미산운동을 통해 지역공동체운동이라는 더 큰 지역운동으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생활공동체운동에서 주민환경운동, 그리고 지역공동체운동으로 발전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동안 운동의 참여자들은 서로간의 신뢰, 네트워크를 증진시키고 사회적 규범을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생활공동체운동과 성미산운동의 참여 정도에 따라 대상 집단을 3개의 그룹으로 구분하고, 그룹별 심층면접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사회적 자본의 각 개념요소에 대해 정성적·정량적 분석을 병행하였다. 이를 통해 생활공동체운동과 성미산운동의 참여자가 보여주는 신뢰, 네트워크, 사회적 규범의 수준이 성미산운동의 참여자 보다 높으며, 성미산운동 참여자가 보여주는 사회적 자본의 축적 수준이 일반지역주민에 비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생활공동체운동으로 형성된 사회적 자본이 성미산운동이라는 주민환경운동의 과정 속에서 더욱 증진되었으며, 이는 사회적 자본의 누적적 증진과정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주제어 : 사회적 자본, 주민환경운동, 공동체 운동, 상호작용, 누적적 증진

* 본 논문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도시계획학 석사학위 논문을 일부 수정한 것임을 밝힙니다.

1. 서론

초기에 경제적 효율성의 측면에서 시작된 사회적 자본에 관한 논의가 최근에는 시민사회의 성장, 참여민주주의의 확대와 같은 사회적·제도적인 측면으로 확대되고 있다. 즉, 사회적 신뢰에 기초한 사회적 자본은 개인의 사익추구에서 유발되는 집단행동의 딜레마를 극복하여 공공선의 구현을 보다 용이하게 하며, 참여민주주의의 발전에도 기여한다는 연구들로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신뢰, 네트워크, 사회적 규범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자본은 어느 사회에나 내재해 있으며, 다만 그 정도의 차이만 있다고 볼 수 있다. 푸트남(1994)이 주장하는 것처럼 한 사회의 성장과 발전이 사회적 자본의 축적정도에서 비롯된다고 본다면, 그리고 사회적 자본이 집합행동의 딜레마를 극복하고 공공선을 추구하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이러한 사회적 자본을 어떻게 증진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연구의 과제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 특히 사회적 자본 논의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사회적 관계’의 측면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구성원간 신뢰는 상호간의 관계 형성으로 구축되며, 이러한 상호관계의 지속은 신뢰의 증진과 사회적 규범의 형성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적 자본은 도덕성과 같이 사용하면 할수록 증진되고,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는 푸트남의 논의는 사회적 자본이 누적적으로 증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구성원간의 신뢰와 네트워크의 상호작용을 활성화시키고, 이로 인한 사회적 규범을 형성해나가는 과정이 반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환경문제의 심화와 환경의식의 증진은 사회 각 영역에 걸친 환경운동을 발생시켰다. 그러나 환경운동은 운동의 이해관계가 특정 집단에 국한되어 있기보다는 사회 구성원 모두와 연결되어 있어, 사회

구성원이 직접 나서서 적극적으로 운동에 참여하기보다는 무임승차를 자청하거나 오히려 환경을 오염시키는 유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즉, ‘죄수의 딜레마’에 비유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각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민환경운동은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자기 지역의 물리적 공간이나 환경을 지키고자 한다는 점에서 매우 적극성을 띤다. 특히 지역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여러 가지 운동의 전략과 내용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반복적으로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본 연구의 사례인 ‘성미산 배수지 건설 반대운동’ 역시 지역의 환경(공간)을 지키기 위해 시작되었지만, 운동의 내용은 오히려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참여자들과의 친밀도를 높이기 위한 소위 ‘문화운동’의 성격이 매우 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화운동적 성격은 이미 그들이 구축해 왔던 신뢰, 네트워크, 사회적 규범에 영향을 받으며, 이를 바탕으로 더 높은 수준의 신뢰, 더욱 정교화 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사회적 규범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주민환경운동과 사회적 자본과의 연결고리가 형성된다. 주민환경운동의 발생이 이미 형성되어 있던 사회적 자본의 정도에 영향을 받고, 또한 주민환경운동의 과정 속에서 참여자간의 신뢰와 네트워크를 증가시켜 공유된 표현과 의미체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은 사회적 자본이 증진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주민환경운동은 초기에는 몇몇 사람들의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지만 지역의 환경(공간)을 지키기 위한 운동이라는 점에서 더 많은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가져오게 된다. 이들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운동의 참여자들과 새로운 정보를 소통하게 되고, 반복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네트워크를 증진시키게 된다. 주민환경운동이 이렇게 신뢰와 네트워크 그리고 사회적 규범을 형

성하는 과정이라면 이는 사회적 자본을 축적시키는 과정이라 볼 수 있으며 이렇게 축적된 사회적 자본은 다른 주민환경운동, 더 발전된 주민환경운동 또는 본 연구의 대상과 같이 지역공동체운동으로 발전하는 동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적 자본 구축 방안의 모색이라는 큰 연구의 목적 아래, 주민환경운동으로서 ‘성미산 배수지 건설 반대운동’의 발생배경과 전개과정을 되짚어 사회적 자본이 증진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정량적으로 실증하고자 한다. 이는 사회적 자본은 누적적으로 증진되며, 주민환경운동과 사회적 자본은 순환누적적 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밝히고자 함이다.

2. 이론적 배경과 연구범위 및 방법

1) 환경운동과 주민운동 그리고 주민환경운동

주민환경운동¹⁾은 일반적으로 ‘일정 지역의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환경문제에 대응하거나 또는 이로 인한 피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주민 집단 또는 지역사회 전체의 환경생태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적 활동(최병두·이근행 1999)’을 말한다. 쉽게는 ‘주민환경운동’이라는 표현에서 ‘주민운동’과 ‘환경운동’이 결합된 어떤 형태 정도로 유추해볼

1) 논자에 따라서는 ‘지역환경운동’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주민환경운동이 ‘주민’이라는 운동의 주체에 무게중심을 둔 표현이라면, 지역환경운동은 ‘지역’이라는 공간적 범위에 무게중심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성미산’이라는 지역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적극적인 운동을 벌였다는 점에서 지역환경운동, 주민환경운동의 두 표현 모두 가능하지만, 주민들의 활동과 관계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주민환경운동’이 더 적합하다.

수 있겠다.

일반적으로 환경운동은 운동의 이해관계가 특정 집단에 국한되지 않고 극단적으로는 전체 사회 성원 모두와도 이해가 걸림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어느 누구도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부각되지 않은 채 다만 그러한 전체의 이해를 전문 환경 운동 집단에서 대변하게 되고, 다른 대다수 사회 성원들은 단지 운동의 비용 지출이라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채 운동 결과의 수혜를 공유하게 되는 무임승차의 상황에 놓이게 된다(이득연 1998)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주민환경운동이 환경운동의 한 유형이면서도 그만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는 것은 바로 이 점에 있다. 즉, 자신의 지역에서 일어나는 환경운동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의 참여가 두드러질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운동의 주체적 특성은 환경운동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고 운동의 실천력을 담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편, 주민운동은 흔히 “지역 내에서 생활근거지를 갖는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주민으로서 일상생활상의 요구와 이의 궁극적 해결을 위하여 전개하는 대중운동”이라고 정의된다²⁾. 특히 정근식이 분류하고 있는 것처럼 1980년대 이후 발생한 도시내 주민운동의 대부분은 대규모 도시재개발과 관련되어 있으며, 개발이익의 불평등한 분배 또는 피해보상과 관련된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에서 주민운동과 구별되는 주민환경운동의 특성을 발견할 수 있는데, 주민환경운동의 경우 지역의 환경을 지키기(살리기)위해서 일어나는 것으로서 경제적 이해관계와는 다른 환경 생태적 이해관계가 중시된다는 점이다. 즉 지역의 생태환경은 지역의 주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는 어떤 경제적 가치로 환원할 수 없는

2) 민주화운동청년연합, 1988, ‘지방자치제와 지역주민운동’, 『화의 길 20호』; 정근식, 1991에서 재인용.

그만의 고유한 위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주민환경운동은 이러한 환경생태적 가치를 중요시 한다는 점에서 두드러진다. 따라서 주민환경운동은 지역사회의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운동의 주체가 되고, 그 실천을 통해 환경생태가치를 실현시키고자 한다는 점에서 환경운동과 주민운동의 단순한 결합이 아닌 더욱 적극적인 사회운동이라 볼 수 있다.

2) 사회적 자본의 개념과 효과 그리고 측정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라는 용어는 20세기 중반 무렵부터 부르디외와 콜만을 비롯한 몇몇의 학자들을 통해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부르디외(Bourdieu 1986)는 사회적 자본을 “친근감이나 상호인 지적 관계가 제도화된 덕택에, 혹은 지속적인 연결망의 덕택에 개인이나 집단이 실제적으로, 혹은 가상적으로 얻게 되는 이점이나 기회의 총합”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에 비하면 콜만(J. Coleman 1998)의 정의는 좀더 다차원적이다. 그는 물질적 자본이나 인적 자본과의 대비를 통해 사회적 자본을 정의한다. 즉 관찰 가능한 물질적 형태로 체화되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도구, 기계, 생산설비 등을 물질적 자본으로, 개인 안에 체화된 기술이나 지식 등을 인적 자본으로,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신뢰관계에 내재한 것을 사회적 자본으로 정의하였다.

한편 푸트남(Putnam 1994)은 20여년에 걸친 북부 이탈리아의 지방 정부에 대한 실험적 연구를 통해 정치적 및 경제적 발전을 가져오는 소규모 단체를 결성하는 전통 깊은 주민성향을 발견하였다. 그는 사회적 자본을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는 구성원들 간의 협력을 수월하게 함으로써 사회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게 하는 신뢰, 규범, 연결망 등과 같은 사회조직적 특성’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들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결국 사회적 자본의 개념정의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사람들 간의 관계맺음(네트워크)을 통해 형성되는 신뢰 또는 신뢰를 통해 형성되는 사람들 간의 다양한 관계맺음’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신뢰와 네트워크를 통해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규범과 제재 등이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자본은 사회에서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 논자에 따라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³⁾ 여기서는 죄수의 딜레마 해결 그리고 시민사회의 발전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 사회적 자본의 사회적 이익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얘기되는 것은 공공재 공급의 원활화라든가 ‘죄수의 딜레마’ 해결로 인한 이익일 것이다. 각 개인들이 합리적이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다 보면 결국 최악의 상황을 자초하게 된다는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서 사회적 자본은 각 개인에게 내적으로는 비협조적 행위에 대한 수치심이나 죄의식을 가지게 하는 한편 외적으로는 사회적 비난이나 제재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함으로써 개인의 이기적 동기를 억제한다. 그러므로 사회적 자본은 각 개인들 간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그럼으로써 딜레마의 상황을 깨뜨리는데 기여하게 된다. 환경문제의 해결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의 하나로 인식되어 왔던 죄수의 딜레마에 있어 주체적 성

3) 사회적 자본의 기능과 효과에 대해 사회적 자본과 경제성장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벡과 키퍼(S. Knack & P. Keefer 1997) 뿐만 아니라 사회 자본의 부정적 효과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이재열(1998)과 같이 사회적 자본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주장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사례에 있어서도 사회적 자본이 긍정적 효과만을 가져왔는가에 대해 오랜 기간동안의 관찰과 분석을 통해 검증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만, 연구 시점과 기간의 한계로 단편적인 효과에만 집중하여 분석한 점은 본 연구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좀 더 다각적인 분석은 향후 연구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격이 강조되는 주민환경운동과 그로 인한 사회자본의 형성이 이 난점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즉 사회자본은 사회적 의무감 또는 사회의식 없이 이익과 지대를 추구하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개인을 공동의 이익과 공공선⁴⁾을 지향하는 시민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탈바꿈시킴으로써 사회를 하나로 묶어주는 사회적 접착제의 역할을 수행한다(Newton 1999; 유재원 2000에서 재인용).

사회적 자본 생성에 있어 결사체의 중요성은 여러 논객들에 의해 이미 고찰되었다. 오래전 토크빌(Tocqueville 1968)은 “결사체는 협조의 습관, 단결심과 공적 정신을 구성원들의 마음에 고취시킨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알몬드와 버바(Almond & Verba 1963)의 ‘시민문화론’에 따르면, 결사체의 회원들은,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자신을 보다 능력 있는 시민으로 규정하며, 정치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으면서 보다 많이 알고 있고, 민주적 규범을 보다 지지한다. 그리하여 결사체의 회원이 민주시민의 이상형에 보다 근접하게 된다는 것이다(유재원 2000). 이와 같은 논의는 결사체의 참여가 면대면 상호작용을 증대시켜 신뢰나 네트워크를 증진시키고, 결사체 내부에서 형성된 규범과 가치는 사회전체로 확산되어 신뢰와 상호주의가 보편화되고 이를 통해 결국에는 사회전체의 사회적 자본을 증진시킨다는 것을 주장한다. 여기에 시민결사체가 시민들의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을 증대시킨다는 토크빌의 시민사회의 개념

4) 이재열(1998)은 사회적자본의 논자들이 사회적 자본이 공공선(public good)을 창출하는 것으로 논의하지만, 동시에 공공악(public bad)을 창출하는 원천이 되기도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게토지역이나 빈곤층에 대한 연구들은 이러한 지역들이 사회적 자본을 결여했다기 보다는, 그 반대인 경우가 많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는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부정적 의미의 사회적 자본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마피아나 매춘집단, 젊은 갱 등의 하위문화가 가지는 속성이 바로 이러한 부정적인 의미의 사회적 자본이 된다고 주장한다.

을 빌어, 시민사회는 비국가적이고 비개인적인 자율적인 중간매개(intermediate) 공간이라고 주장하는 임혁백(2000b)의 논의는 시민결사체와 사회적 자본, 그리고 시민사회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형성한다.

사회적 자본의 개념을 논하기 위해서는 그 개념요소 뿐만 아니라 앞에서 살펴보았듯 그 효과까지 논의가 되어야 하고 그러자면 사회적 자본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지금까지의 사회적 자본의 측정은 논자들에 따라서 몇 가지 사회적 자본의 개념요소를 도출하고, 이와 관련된 설문문항을 제시하여 측정하는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여기서는 몇몇 논자들의 연구를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민환경운동이 사회적 자본과 상호작용하여 사회적 자본을 증진시키는가’에 대한 결론을 이끌어 내기 위한 측정문항을 도출하려고 한다.

Bullen과 Onyx(1997)는 호주 New South Wales의 다섯 개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사회적 자본을 측정하기 위해 사회적 자본을 “상향적(bottom-up)” 입장에서 접근하고, 이를 신뢰, 상호이익관계 및 행동규범의 원칙에 근거한 사회적 관계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주민과 관련시키고 있다. 이들은 구체적인 사회적 자본 측정에 앞서 이제까지 문헌상에 나타난 사회적 자본 관련 주제를 도출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제는 첫째, 네트워크에의 참여, 둘째 호혜성(reciprocity), 셋째 신뢰, 넷째 사회적 규범, 다섯째 공통분모(the commons), 여섯째 적극적 활동력(proactivity) 등이다.

Grootaert, Narayan, Jones, Woolcock(2003)은 이제까지 논의되어온 사회적 자본의 속성을 고려하여, 사회적 자본을 각각 사회단체 및 네트워크, 신뢰와 결속력, 집단행동과 협력, 정보와 통신, 사회적 응집력과 포섭력, 권력획득과 정치적 행동의 여섯 가지의 차원으로 분류하고 이를 조사하기 위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소진광(2003)이 성남시에서의 사회적 자본을 조사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신뢰기반, 네트워크, 사회적 규범, 참여기회 및 이타적 성향과 포용력 등의 다섯 가지 개념요소를 설정하였다. 이를 정리하여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1〉 사회적 자본 측정위한 지표설정 비교표

Bullen & Onyx (1997)	지역사회 참여/사회에서의 적극적 활동력/신뢰와 안전의 감지 /이웃관계/가족 및 친구관계/다양성의 포용력/삶의 가치/작업연계	
Christian Grootaert (2002)	구조적 사회자본	멤버십의 밀도/멤버십의 다양성/의사결정에의 참여
	인지적 사회자본	결속감/신뢰와 협동/갈등 해소
Grootaert, Narayan, Jones, Woolcock (2003)	사회단체 및 네트워크/신뢰와 결속력/집단행동과 협력/정보와 통신/사회적 응집력과 포섭력/권력획득과 정치적 행동	
소진광(2003)	신뢰기반/네트워크/사회적 규범/참여기회/이타적 성향 및 포용력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논의를 배경으로 신뢰기반, 네트워크, 사회적 규범의 세 가지 요소를 사회적 자본의 개념요소로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이를 성미산운동이라는 주민환경운동을 사회적 자본의 관점에서 분석하기 위한 개념요소로 활용하고자 한다.

3)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2001년 7월부터 2003년 10월까지 일어났던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 배수지 건설 반대운동’(이하 성미산운동)을 중심으로 한다. 그러나 성미산운동의 배경에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형성되

고 있었던 지역의 생활공동체운동이 있고, 또한 성미산운동 이후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역공동체’운동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연구의 대상을 성미산운동을 중심으로 하되 그 이전의 생활공동체운동과 이후의 지역공동체운동까지 연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주민환경운동과 사회적 자본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의 범위는 크게 두가지 접근으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는 이론연구를 토대로 도출한 사회적 자본의 3가지 개념요소, 즉 신뢰, 네트워크, 사회적 규범으로 한정하고 이를 문헌자료와 관계자 심층면접을 통해 살펴보는 정성적 접근이고, 두 번째는 이러한 정성적 접근을 통해 이해한 사회적 자본의 변화정도를 성미산운동 참여자와 비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분석한 정량적 접근이다.

(1) 신뢰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신뢰란 구체적으로 어떤 뜻일까. 박찬웅(1999)은 도이치(Deutsch 1958), 루만(Luhmann 1979), 갬베타(Gambetta 1988)의 논의를 종합하면서 “한 행위자가 위협에도 불구하고 다른 행위자가 자신의 기대 혹은 이해에 맞도록 행동할 것이라는 주관적 기대”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신뢰에 대한 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아직 합의된 명확한 정의는 없다.⁵⁾ 대신 많은 논자들은 신뢰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 보다는 신뢰의 구성요소를 찾아낸 뒤 유형화함으로써 신뢰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주민환경운동과 사회적 자본의 상호작용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으로, 신뢰의 개념정의를 명확히 하기보다는 신뢰의 형성과정을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러 논자들의 신뢰연구⁶⁾를 바탕으로 신뢰

5) “신뢰라는 개념을 신뢰할 수 있는가?” 라는 갬베타의 질문은 이러한 어려움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이병혁 2001).

를 구축하는 요인들을 도출하여 분석에 활용하고자 한다. 따라서 성미산운동의 과정이 신뢰구축의 과정이었다는 것을 ①반복적 상호작용, ②공통의 목표설정, ③공통의 명칭 형성, ④지리적·사회적 근접화, ⑤공통의 가치·규범 형성의 측면에서 분석할 것이다.

(2) 네트워크

네트워크는 개인이나 집단 등 행위자간의 전반적인 연계형태를 말해주는 것으로,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접근하는가 하는 관계구조라 할 수 있다(송태수 2004). 따라서 네트워크는 집단내 그리고 집단간 관계와 유대를 돈독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를 크게 개인적 수준과 조직적 수준으로 나누고, 개인적 수준은 단체가입 수, 위급 시 비상연락망의 수와 우선순위, 친목도모 등의 세부항목으로, 그리고 조직적 수준은 조직의 수 증가와 네트워크(연결망) 증가의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3) 사회적 규범

사회적 규범은 개인간 또는 집단간에 공유된 표현, 해석, 의미체계 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규범은 호혜성을 기본 속성으로 하며, 이러한 일반적인 호혜성은 집합적 행위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제공해주고, 공동체의 유대감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Adler and Kwon 2000; 송태수 2004 재인용).

주민환경운동은 지역의 공간을 지키기 위해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발생하는 환경운동의 한 유형이다. 따라서 이들은 이 운동의 과

6) 김일태(2001)는 신뢰를 크게 사적(개인적, 미시적, 사람에 대한) 신뢰와 공적(사회적, 거시적, 제도에 대한) 신뢰의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박찬웅(1998)은 신뢰가 생겨나고 유지되는 근거를 논리적인 차원에서 분류한 샤피로, 세퍼드, 체라스킨의 논의를 근거로 제재의존적, 지식의존적, 일치감의존적 신뢰로 구분한다.

정 속에서 환경가치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게 된다. 이것은 운동에 참여하게 되는 동인이 개인적인 환경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또는 단순히 지역 공간 지키기 운동에 동참하면서 환경의식을 더 높이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또한 지역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과정은 지역문제해결 역량을 기르는 과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민환경운동을 통해 형성된, 또는 증진된 환경의식이 또 하나의 사회적 규범이라는 가정과 함께, 성미산운동 이후 환경의식이 증가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지역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식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2〉 사회적 자본의 개념요소와 세부항목

사회적 자본의 개념요소	구성내용	세부항목
신뢰	공공정책에 대한 신뢰	정부정책, 마포구정책에 대한 신뢰
	단체에 대한 신뢰	시민운동단체, 사회단체에 대한 신뢰
	사람에 대한 신뢰	이웃, 일반인에 대한 신뢰
네트워크	개인수준	단체가입수, 위급시 비상연락망의 수와 우선순위, 친목도모
	조직수준	조직의 수, 네트워크 형성 및 증가
사회적 규범	환경의식	
	지역문제 해결 방법	

또한 이러한 사회적 자본과 주민환경운동의 상호작용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성미산운동의 배경이 되었던 생활공동체운동과 성미산운동의 참여자 그리고 일반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과 설문조사를 병행하였다. 특히 생활공동체운동과 성미산운동의 참여정도에 따라 그 구성원을 3개의 그룹으로 구분하고, 그룹 간 사회적 자본의 축적정도를 비교하였다.

〈Group 1〉은 생활공동체운동을 경험하고 성미산운동에도 참여한

구성원으로서 대부분이 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사람들이다. 처음 성미산운동을 시작한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며, 초기 구성원은 20여명 정도였다. 그러나 성미산운동을 위한 조직이 만들어지고, 점점 운동이 적극성을 띠면서 그 참여자도 늘어나게 되는데, 대부분은 두레생활협동조합과 공동육아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던 사람들이다. 따라서 <Group 1>은 두레생활협과 공동육아조합원들 중에서 성미산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 구성원들로 한정하였다.

<Group 2>는 이전에는 어떠한 공동체운동에도 참여하지 않다가 성미산운동에 참여하게 된 사람들로서, 이들은 대부분 성미산을 이용하던 지역주민들이었다. 이들은 신체조회, 역도회 등의 동호회에 가입하여 성미산을 여가, 휴식공간으로 활용하였고, 성미산운동의 과정에서는 주로 집회·홍보활동 참여, 주민서명받기, 문화운동(성미산음악회, 마을축제, 나무심기 행사 등) 등에 참여하였다.

<Group 3>은 생활공동체운동과 성미산운동 모두에도 참여하지 않은 일반 지역주민들로서, 이들은 생활공동체운동과 성미산운동이 일어났던 마포구내 6개동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로 한정하였다.

참고로 본 연구는 정성적 연구방법과 정량적 연구방법을 병행하고 있다. 정성적 접근에서는 주로 문헌자료와 응답자료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일부자료는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변환되는 과정에서 원자료의 생성의도와 다르게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주민환경운동과 사회적 자본의 관계를 분석하는 실증자료로 활용된 설문자료는 성미산운동에 참여한 주민수, 즉 모집단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설문대상자의 사회적 배경(연령, 성별, 직업, 학력 등)의 특성 변수를 고려하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전체적인 경향성을 예시하는 수준이지 그것이 통계적 정확성을 나타내는 검증결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사회적 자본의 증진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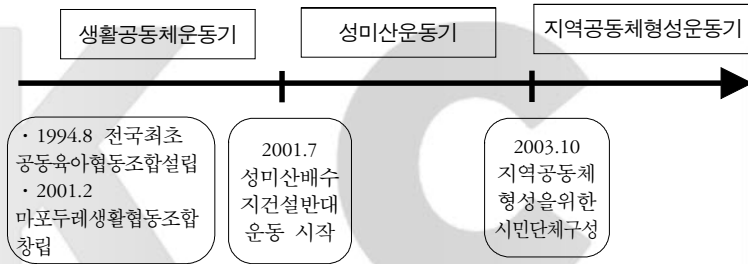
서는 통시적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함이 마땅하고, 이는 전후의 비교분석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나 본 연구에서는 시간적인 한계로 참여자와 비 참여자의 그룹간 비교를 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을 미리 밝혀 둔다.

〈표-3〉 연구 방법

연구방법	연구기간	연구대상	연구내용
문헌 조사	· 2004년 7월~11월	국내의 문헌, 신문, 운동 자료집	· 사회적자본, 주민환경운동의 이론적 배경 · 성미산운동의 과정과 사회적 자본의 관계
면접 조사	· 8월 9일 · 9월 9일	· 김종호 (성미산대책위, 마포연대 위원장)	· 운동의 전반적인 전개과정과 조직적 측면의 운동전략
	· 11월 17일	· 이현찬 (성미산대책위 공동대표)	· 성미산운동의 참여계기 및 운동 전후의 사회적 자본 비교
	· 8월 28일 · 9월 11일 · 10월 16일 · 11월 14일	· 성미산운동의 참여자 (녹색사회연구소의 마을만들기 워크샵 참여 및 개별면접)	· 성미산운동 참여와 관련된 전반적 사항
설문 조사	· 1차: 11월 11~12일 · 2차: 11월 14~20일	〈설문대상〉 · Group1: 생활공동체운동과 주민환경운동의 공동참여자 (23명) · Group2: 주민환경운동 참여자 (20명) · Group3: 6개동 일반 지역주민(27명)	· 사회적 자본의 3가지 개념요소 (신뢰, 이웃관계, 사회적 규범)를 측정

3. 성미산 운동의 전개과정과 특성

성미산 배수지 건설 반대 운동은 이미 이 지역에서 형성되고 있었던 생활공동체운동의 배경 속에서 형성되었다. 1994년 8월 전국최초로 공동육아 협동조합이 설립되면서부터 시작된 대상지역의 생활공동체운동은 이후 두레생활협동조합 설립과 공동육아협동조합의 확대 분화로 이어졌다. 그리고 성미산운동의 성공 이후, 이 지역의 생활공동체운동은 마포연대를 중심으로 한 지역공동체형성운동으로 발전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림-1〉 사례지역의 시기구분

1) 성미산 운동의 배경: 생활공동체운동의 형성

(1) 공동육아운동

1994년 공동육아연구원(현 사단법인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과 부모·교사들이 주축이 되어 당시의 보육문제를 해결해보려는 부모 참여형 협동조합 어린이집이 구상되었다. 그 첫 번째 시도로 ‘우리어린이집’이 마포구 성산동에 설립되었고, 이듬해인 1995년 ‘날으는 어린이집’이 서교동에 설립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어린이집만으로는 그 수

요를 충당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2002년에 기존 어린이집의 대기자를 중심으로 하는 참나무어린이집이 새로 설립되면서 현재 마포지역 공동육아는 3개의 어린이집과 2개의 방과 후 교실이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이 지역은 반경 2km이내에 3개의 공동육아 어린이집이 모여 있고, 관계자들과 출신 가족들 200여 가구가 밀집되는 특성을 지니게 되었다.

(2) 생활협동조합운동

생활근거를 만들고자 하는 거점으로서 2000년 4월 생협설립을 위한 준비모임을 갖게 되었고, 그해 11월 사무실을 열고 물품공급사업을 시작하였다. 이듬해인 2001년 2월 ‘마포두레생활협동조합’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생협활동이 시작되었다. 이후 유기농산물 직거래활동 뿐만 아니라 ‘도시에서 생활공동체 전망찾기’등의 공동체운동, 마을학교 ‘우리마을꿈터’등을 설립하면서 이 지역 공동체운동의 구심이 되었다.

(3) 생활문화운동

이 지역에서는 2001년부터 해마다 ‘마을 축제’를 열고 있다. 마을 축제의 시작은 1998년 공동육아 우리어린이집 교사들이 동네 아이들과 함께 진행한 ‘방학 중 전래놀이마당’에서 비롯되었다. 이후 마을축제 공동위원회를 꾸려 같은 해 5월 4일에서 6일까지 마을축제 ‘동네야 놀자’를 개최하였고 매년 5월에는 성미산 일대 마포구 지역에서 마을 축제가 벌어지고 있으며, 해가 갈수록 그 내용이 풍부해지고, 참여자도 증가하고 있다.

2) 성미산운동의 전개

성미산 배수지 건설 계획이 드러난 것은 2001년 7월 서울시의 성미산 지구단위계획(안)이 발표되면서부터였다. 1993년 2월 서울시에서 성미산 1/3에 해당하는 정상부에 ‘성산배수지’를 짓겠다는 실시계획이 결정되고, 1997년 12월에 실시계획이 인가되었다. 이후 1999년부터 부지매입이 추진되면서 성미산의 소유주인 한양재단에서는 이 기회에 어차피 배수지가 들어서면 산은 파괴될 것이므로 남은 남쪽 부지에 420세대 가량의 아파트 건설을 가능토록 해주면 북쪽 남은 부지는 구청에 기부채납 하겠다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 위한 제안서’를 마포구청에 접수하였다. 2001년 7월 경 지구단위계획 제안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절차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비로소 일반 주민들이 배수지계획과 아파트계획을 접하게 된 것이다.

성미산을 아이들의 교육의 장, 지역주민의 휴식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던 인근의 지역주민들은 반대운동을 위한 주민조직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성미산을 지키는 주민연대모임’(이하 성지연)을 조직하였다. 이들의 목표는 일차적으로 성미산 배수지 건설계획의 재검토였다. 만약 상수도사업본부의 주장대로 배수지가 꼭 필요하다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고수하고 있는 자연유하식이 아닌 대안적인 배수지 건설 방식이 검토되거나 또는 대안지역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성지연은 성미산 배수지건설의 필요성을 재검토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자료집을 구성하기 시작하였다. 그 과정에서 서울시 상수도 계획의 문제점을 알게 되고, 성미산의 환경적 가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동안의 반대운동에도 불구하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2003년 2월 공사를 착공하려는 계획을 고수하자 좀더 적극적인 운동의 필

요성을 인식하였고, 이에 ‘성미산 개발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성미산대책위)’를 조직하였다. 또한 성미산대책위로 조직이 개편되면서 그동안 운동을 지지해오던 마포구 지역의 지역조직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시민조직들까지 합세를 하면서 그 규모가 확대된다.

특히 2003년 1월 29일 새벽,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성미산을 기습적으로 벌목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반대운동은 매우 격렬해진다. 기습 벌목 다음날인 1월 30일 성미산대책위는 성미산 정상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하였고, 예정된 토목공사 저지를 위해 ‘공사저지를 위한 비상연락망과 사수대’를 결성하였다. 이 천막농성을 지지하기 위해 성미산 정상부에서 매주 토요일 다양한 문화행사와 함께 주민집회가 열렸으며 2월 1일 설날에는 설차례와 산제도 성미산에서 지내게 된다. 성미산 기습벌목으로 인해 성미산 운동은 외부적으로도 매우 적극적인 형태를 띠게 된다. 성미산 기습벌목에 항의하는 항의전화걸기(이명박 서울시장, 박홍섭 마포구청장,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박주천 마포을 국회의원)를 시작으로 지역홍보를 위해서 매주 토요일 망원역 주변 주민총불행사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성미산 환경파괴 및 성산배수지 재검토를 위한 2차 주민서명운동을 시작하였고, ‘공사 중지’와 관련하여 행정요청을 여러 차례 제출하고, 고소고발까지 하게 되는 격한 상황에 이르게 된다. 이전에는 주로 성미산 주변지역 또는 마포구 일대에서 홍보활동이 주로 이루어졌으나, 운동이 심화되면서 서울시청 앞에서 여러 차례의 주민규탄집회, 기자회견 등을 벌이면서 그 홍보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이런 노력으로 결국 2003년 5월 27일 전문가 공청회가 열리게 된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의 잘못된 수요예측과 배수지 건설계획에 대해 상수도사업본부 측에서 제대로 답변을 해 내지 못함으로써 성미산운동의 성공가능성을 예견하게 되었다. 마침내 2003년 10월 10일 서울시의

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장이 성산배수지 공사 유보 결정을 보고하면서 성미산운동은 성공으로 일 단락 짓게 된다.

3) 성미산운동의 성과: 확대되는 지역공동체운동

(1) 마포연대의 창립

성미산운동의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그동안 성미산 운동을 함께 해 온 주민들이 다같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시민단체의 필요성을 공감하였다. 이에 9월 5일 지역시민단체 건설을 위한 제1차 제안자회의가 열렸고, 이후 5차에 걸친 제안자 회의를 통해 11월 29일 마포연대 준비위원회를 발족하였다. 특히 마포연대는 성미산운동에 함께 참여했던 지역의 조직들과 함께 연대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고 있으며, 본격적인 지역공동체운동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2) 다양한 움직임들

① 성미산 학교

성미산 학교는 2004년 9월에 개교한 도시형 대안학교이다. 초·중·고 교육과정을 합친 12년제로, 교육과정은 입시를 염두에 둔 기존 교과서 중심의 교과에서 벗어나 아이들의 전반적인 성장을 돕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각 학년별로 담임교사가 있지만 기존 학교와 그 역할이 다른데, 성미산 학교의 담임교사는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기 보다는 아이들의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관찰하며, 그 과정을 기록하고, 지역의 다양한 교육 자원을 엮어서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즉 성미산 학교는 ‘교육네트워크’ 형성을 목표로 한다.

② 성미산 차병원

‘성미산 차병원’은 차량수리 내용을 공개하고 투자한 회원들에게 배당금도 주는 새로운 형태의 자동차 정비업소이다. 2003년 11월, 110가구의 주민들이 1억 2000만원을 출자해 만든 전국 최초의 조합형 자동차 정비업소로서, 다른 일반 정비소에 비해 수리비가 저렴하지는 않지만 원가와 공임 등을 투명하게 밝히고 필요한 부분만 수리하고 있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만족해하고 있다. 특히 수익의 10%는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조합원들의 이익 배당에 충당하고 있다.

③ 마포 공동체 라디오

2004년 11월 16일 한국방송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8개의 소출력 라디오방송 시범사업자를 선정하였는데, 그중 ‘마포공동체라디오’가 포함되었다. 8개의 시범사업 형식으로 선정된 소출력 라디오방송은 FM 주파수(88~108MHz) 대역에서 1와트 수준의 작은 출력을 이용하여 제한된 지역에서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지역밀착형 동네방송으로 기존의 라디오와는 달리 비영리로 운영하게 된다.

4) 성미산 운동의 특성

(1) 성미산 운동의 이해관계자

성미산배수지건설 반대운동은 다른 환경갈등과 마찬가지로 지역주민과 정부기관의 직접적 이해관계자 뿐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함하고 있다. 성미산운동의 찬성과 반대의 이해관계자를 그 목적과 범위에 따라 세분할 수 있는데, 반대의 경우 성미산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①성미산을 직접 이용하는 실제이용자, ②성미산이라는

생태가치를 중요시 하는 두레생협 회원들, ③아이들의 교육의 장으로서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어린이집 학부모들과, 성서초등학교 학부모 대표 등을 1차적 이해관계자로, 마포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역시민단체와 정당을 2차적 이해관계자로, 그리고 마포구 지역을 벗어나는 외부 시민단체, 외부전문가 그리고 언론 등의 3차적 이해관계자로 세분된다. 찬성의 경우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수도사업본부, 개발이익을 노리는 아파트 추진세력, 지역관변단체 등을 1차적 이해관계자로, 마포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마포구청과 지역구 국회의원을 2차적 이해관계자로 세분할 수 있다.

〈표-4〉 목적과 범위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세부 구분

	1차적 이해 관계자		2차적 이해 관계자	3차적 이해관계자
반대	1. 실제 이용자	신체조회, 역도회, 지역주민	마포자치연대, 개혁국민정당 마포지역위원회, 민주노동당마포을지구당, 전국공무원노조 마포지부	· 외부 시민단체: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시민연대, 생태보전시민모임 · 외부 전문가 · 언론
	2. 환경보존 생태 가치 생태 + 교육	마포두레생협 우리어린이집, 도토리방과후, 나는어린이집, 풀잎새방과후, 참나무어린이집, 성서초등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대표		
찬성	1. 서울시 상수도 사업본부		· 마포구청 · 지역구 국회의원	
	2. 아파트 추진세력	한양재단, 건설업체		
	3. 일부주민	마포사랑시민연대, 주민자치위원회, 지역 관변단체(새마을운동협의회, 부녀회 등)		

* 1차적 이해관계자 - 성미산운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관계자
2차적 이해관계자 - 마포구 지역 범위에 속하는 관계자
3차적 이해관계자 - 마포구 지역을 넘어서는 외부 관계자

〈표-5〉 주요 쟁점과 접근방식

	상수도 사업본부	성미산 대책위
① 배수지 건설 필요성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함	현재의 시설을 잘 운용하면 추가건설 필요 없음
② 배수지 건설 방식	자연유하식이 가장 효율적 대안임	친환경적 방식으로 지어야 하나 자연유하식은 가장 반환경적임
③ 환경가치에 대한 인식	배수지 건설후 생태공원 조성하면 더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음	한번 파괴된 자연환경은 어떤 방법으로도 되살릴 수 없음
접근방식	공급위주, 효율성, 환경가역성	수요위주, 환경성, 환경불가역성

(2) 주요쟁점

성미산 배수지건설을 둘러싼 갈등의 쟁점은 크게 배수지 건설 필요성에 대한 인식차이, 건설방식의 차이, 환경가치에 대한 인식의 차이의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3) 성미산운동의 성격

일반적으로 주민환경운동의 경우 자발적인 조직구성과 참여가 이루어지는 것을 그 특징으로 꼽는다. 성미산운동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배수지건설계획이 대두되었을 때 문제의식을 공유한 사람들이 서서히 조직의 필요성을 느끼고 조직을 구성하게 된 것이다.

(운동 방식을)쉬운 방법부터 힘들지만 법적인 접근까지도 했었고, 그것을 외부에서 한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할만한 사람들이 너 이거해 이것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거죠. 저는 직장을 나가니까 낮에 하는 건 못하지만, 시청 앞에서 시위하고 그럴 때는 점심시간에 점심 안 먹고 나가서 같이 하고 그랬죠. 다들 사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거죠.(지역주민 인터뷰 中)

성미산 운동은 환경생태적 가치지향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것은 특히 앞에서 분석했던 배수지 건설을 둘러싼 세 가지 쟁점을 통해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즉 배수지 건설의 필요성, 배수지건설방식의 차이, 환경가치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무조건 많이 지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비용은 좀 들더라도 최대한 친환경적으로 짓는 것이 중요하다’는 성미산대책위의 주장은 이들이 얼마나 환경생태적인 가치를 중요시 하는가를 엿볼 수 있다.

또한 성미산운동은 마포구에서 유일하게 남은 지역의 작은 산을 살리기 위해 일어났던 운동으로서 그 운동의 참여자 역시 성미산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이라는 점에서 성미산운동은 지역의 ‘장소지키기’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미산 배수지 소식을 듣고는 안된다고 생각했지. 왜냐하면 우리 애들이 자연학습도 하고 그러는 곳이거든. 공동육아 교육프로그램 중에서도 성미산에 가서 자연학습을 하고 그러는데...그게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안되는 거죠. 공동육아가 사실 생태적인거, 친환경적인거 이런 거와도 연결되어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바쁘니까 그전에 매년 성미산에 가고 그러지는 못했지만, 애들하고 가끔 가면 애들이 자연학습 하면서 이름 붙여놓고 했던거 보면서 나도 즐겁고, 느끼는게 많죠. 나중에 서울시에서 생태공원으로 조성해 준다고 얘기했는데 그건 기본적으로 말이 안되는 거죠. 콘크리트 다 친 다음에 공원으로 꾸미는게 무슨 소용이야. 말도 안되지. (주민 인터뷰 中)

성미산운동의 과정은 조직이 구성되는 시점부터 배수지건설계획의 잠정보류 발표가 나는 시점까지 다각적인 방식으로 반대운동이 이루어진 지속적인 집합행동으로서 사회운동적 성격을 띤다. 그러나 기존의 사회운동이 가지는 전략의 과격한 성격보다는 운동의 과정 속에서 의미를 공유하고, 함께 참여하여 무엇보다 재미있게 운동을 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문화운동의 성격이 강하다.

초기에 성미산운동은 성미산배수지건설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반대·저항형’의 성격을 띤다. 그러나 운동이 지속되면서 상수도사업본부의 배수지건설계획에 대한 대응 논리를 만들어내는 대안제시와 활동에의 참여가 주요한 운동의 양식인 ‘참여·대변형’으로 발전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참여자의 수는 일반지역주민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성미산 운동의 성공 이후에는 환경생태가치와 지역공동체를 지향하는 ‘주창·창조형’으로 진화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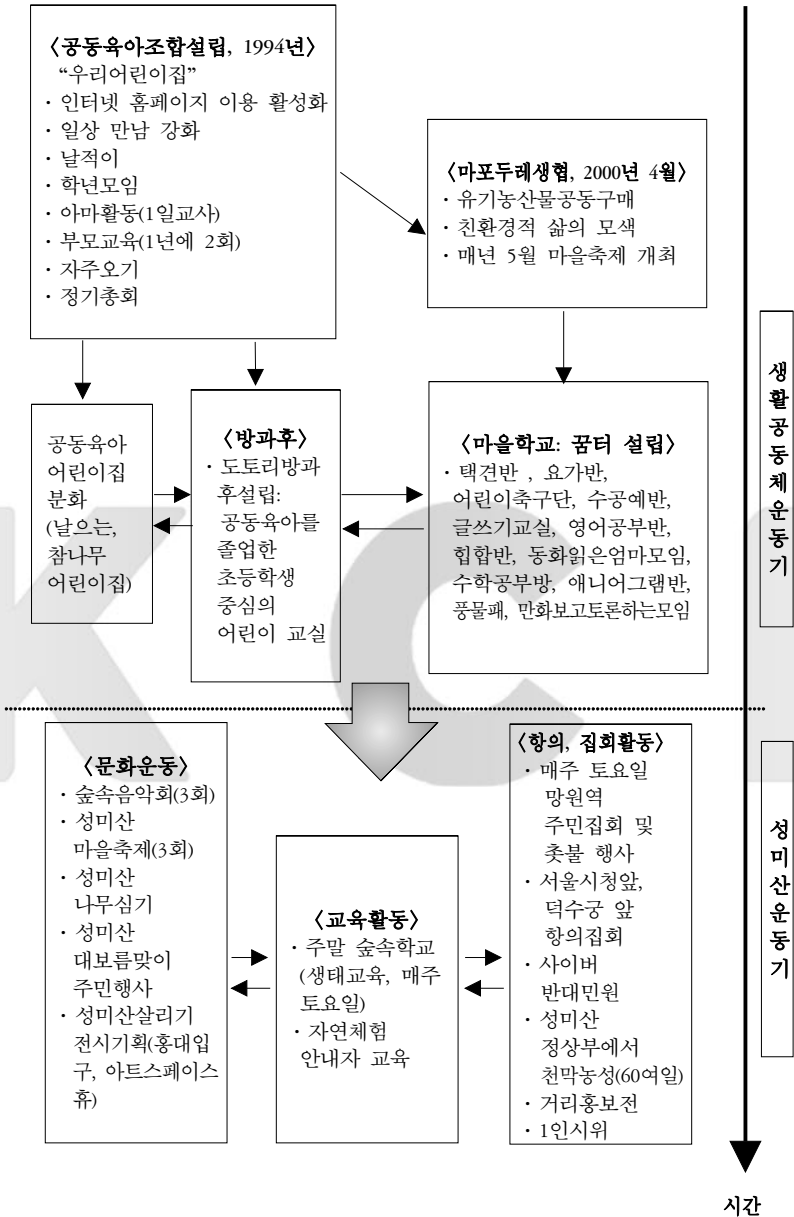
4. 주민환경운동과 사회적 자본의 관계 분석

1) 신뢰

신뢰구축에 있어서, 공동육아에서 시작된 생활공동체운동은 두레생활협동조합, 마을학교 등을 설립하면서 활성화되었다. 이러한 운동참여자들은 조합내 여러 프로그램들에 함께 참여하면서 반복적으로 상호 교류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성미산운동의 과정에서는 음악회, 마을축제, 성미산 나무심기 등의 문화운동과 숲속학교, 자연체험 안내자 교육 등의 교육활동, 그리고 지속적인 항의, 집회활동을 통해 반복적으로 상호작용하게 되었다(그림-2참조).

또한 각각의 시기에 있어서 ‘함께 아이 기르기’→‘유기농산물 공동구매’→‘대안적 배수지 건설 방식 검토’→‘배수지건설반대’→‘성미산 살리기’→‘지역공동체 형성’으로 이어지는 공통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성미산운동’이라는 표현은 이미 이 지역에서 사용되는 그들만의 언어였으며, ‘2·20대첩’, ‘3·13대첩’으로 표현되는 공통의 명칭은 힘든



〈그림-2〉 반복적 상호작용

과정을 무사히 치러내고 승리를 일구었다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이들 관계자들과 출신 가족들은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거리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교류를 확대할 수 있었다.

성미산운동의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자료집과 홍보물은 그들 사이의 공통의 가치규범을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성미산의 생태적 가치를 확인시키고, 더불어 환경의식을 증진시키는 과정이었으며, 지역의 문제를 공통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자치역량의 강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된 것이다.

〈표-6〉 성미산운동 시기에 발간된 자료집 및 홍보물

형태	날짜	내용
자료집	2001.08.17	성미산 개발반대를 위한 주민연대모임 1차 자료집 발간
	2002.09.1	성미산 자연생태현황 조사보고(생태보전시민모임)
	11.11	성미산 생태공원 제안서
	2003.03	성산배수지 재검토 요청 자료집 (대안방식을 통한 재검토 제안)
속보	2003.02.01	성미산 투쟁속보 제1호 발행
	02.28	성미산 투쟁속보 제2호 발행
	03.15	성미산 투쟁속보 제3호 발행
홍보물	수차례	성미산운동의 홍보, 촛불집회 등에 참여 유도

반복적 상호작용, 공통의 목표설정, 공통의 명칭형성, 지리적·사회적 근접화, 공통의 가치·규범의 형성으로 구축된 신뢰를 공공정책에 대한 신뢰(공적 신뢰), 단체에 대한 신뢰, 사적 신뢰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5점 척도로 신뢰점수를 주게 하여 그룹별 신뢰도를 측정해서 확인해 보았다⁷⁾. 먼저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도 점수 평균을 비교해보면,

Group1(이하 G1)이 2.57, Group2(이하 G2)가 2.45, Group3(이하 G3)이 1.78점으로 나타났다. 환경단체, 여성단체 등의 시민운동단체에 대한 신뢰도에서는 성미산운동 참여자(G1: 3.74, G2: 3.65)가 일반인들(G3: 3.00)에 비해서 더 높게 나타났고, 문화예술단체, 종교단체 등의 사회단체에 대한 신뢰도에서도 G1(3.26)>G2(3.15)>G3(2.74)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적 신뢰에 있어서, ‘사람자체’에 대한 신뢰점수 평균은 G1이 2.70, G2가 2.40, G3가 1.85점으로 나타나 다른 신뢰도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G1>G2>G3의 순서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주변 이웃에 대한 신뢰에서는 G1이 3.83, G2가 3.60, G3가 3.00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신뢰도에 대해 그룹별 평균을 비교해보면 생활공동체운동참여자(G1)>성미산운동참여자(G2)>일반인(G3)의 순서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 특히, 생활공동체운동 참여자들(G1)이 성미산운동에만 참여한 사람들(G2)보다도 더 높은 신뢰도를 보여주고 있다. 즉 성미산운동 참여자가 더 높은 신뢰를 형성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생활공동체운동 참여자가 가장 높은 신뢰점수를 주고 있다는 점은 생활공동체운동에

7) 본 연구에서는 그룹간 비교분석을 위해 Fisher의 정확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사용한 통계패키지는 SAS 8.2이다. 검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항목	유의확률
신뢰	공적 신뢰	중앙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0.0807**
		시민운동단체에 대한 신뢰	0.0386*
	단체 신뢰	사회단체에 대한 신뢰	0.0475*
		이웃에 대한 신뢰	0.2835
사적 신뢰	일반인에 대한 신뢰	0.0451*	
	네트워크	이웃의 범위	0.0000*
위급시 도움요청		0.0089*	
사회적 규범	환경의식	0.0000*	
	자치역량	0.0000*	

* 5% 수준에서 유의함

** 10% 수준에서 유의함

이웃에 대한 신뢰를 제외하고는 모든 항목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웃에 대한 신뢰 역시 G1과 G2의 신뢰도 점수에는 별 차이가 없지만, G3와의 신뢰도 점수와는 상당한 차이가 난다는 점을 유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서 성미산운동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이 신뢰구축의 과정이었으며, 이 과정동안 누적적으로 신뢰가 증진된다는 것을 증명한다.

〈표-7〉 신뢰 분석 결과

신뢰 구축 요인	반복적 상호작용 (그림 2참조)	〈생활공동체운동기〉 · 공동육아와 두레생협의 주민프로그램 형성과 연계 〈성미산운동기〉 · 문화운동 · 교육활동 · 향의, 집회활동		
	공통의 목표설정	생활공동체 운동기	성미산 운동기	지역공동체 운동기
	공통의 명칭 형성	· 함께아이 기르기 · 유기농산물 공동구매 등		
	지리적·사회적 근접화	· 배수지 건설 반대 · 성미산 살리기		
	공통의 가치규범 형성	· 성미산싸움, 성미산운동 · 2·20대칩, 3·13대칩 · 동요 만들어 부르기		
신뢰도 측정 결과 ⁸⁾	Group 1	3.07	1순위	
	Group 2	3.00	2순위	
	Group 3	2.46	3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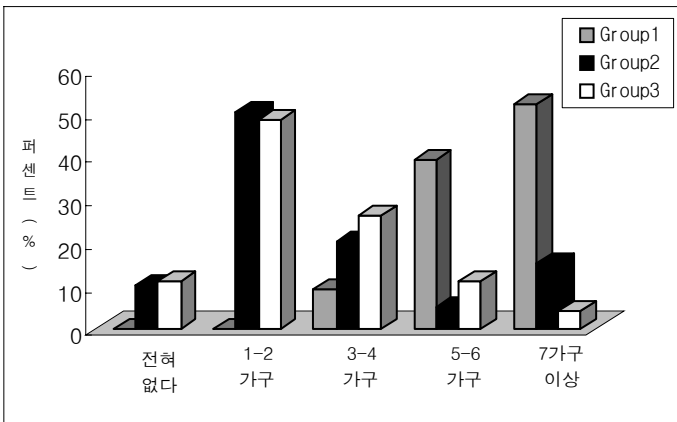
2) 네트워크

전 사실 도시에서만 살아서 산의 이로움을 모릅니다. 성미산도 아이들의 등살에 아이들이 보쳐서 오게 된 거죠. 그런데 이곳에서 이웃을 사귀게 되었어요. 요즘엔 같이 모여서 아이들 자라는 얘기도 하고 어른들끼리 술 한 잔도 하며 친하게 지내게 되었어요. 성미산을 통해 이웃사촌을 만들게 된 셈이죠. 이제 성미산은 우리에게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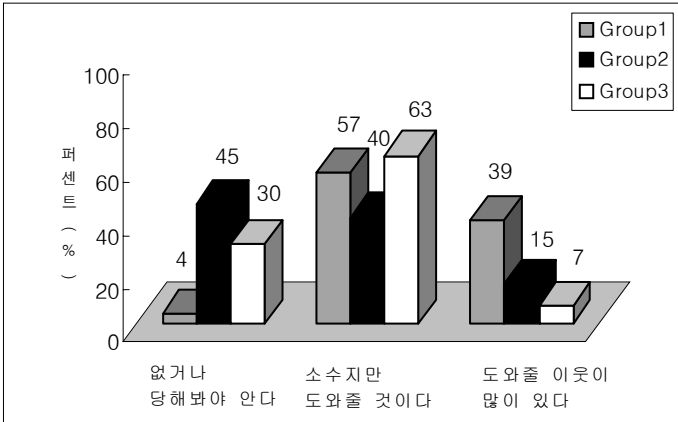
8) 신뢰, 네트워크, 사회적 규범 등의 점수는 각 항목별 5점 척도의 세부 점수를 합산한 결과임을 밝혀둔다.

런 존재입니다(주창복, 오마이뉴스 2003년 2월 10일자 기사 “이웃사촌 성미산, 우리가 지켜야죠”).

네트워크는 개인적 수준에서는 이웃의 범위가 늘어나고, 교류가 확대됨을 의미하는데, G1의 경우 이웃의 범위도 매우 넓고, 위급상황에 처했을 때 이웃에 대한 기대감도 높았다. 이는 그만큼 이웃에 대한 유대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위급시 이웃에 대한 도움요청 기대에 있어서는 G2와 G3 사이에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이웃의 범위는 넓더라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정도로 친근하게는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위급시 도움요청 우선순위에서 이웃을 1, 2위내에 택한 사람의 수는 G2가 G3에 비해 2배 정도의 응답률을 보여 성미산운동으로 이웃과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그 친밀도도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다. 특히 G1의 경우 G2, G3에 비해 이웃관계가 매우 원활하고, 그 유대감도 매우 돈독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이웃관계가 단시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통해 서서히 누적되는 것임을 보여준다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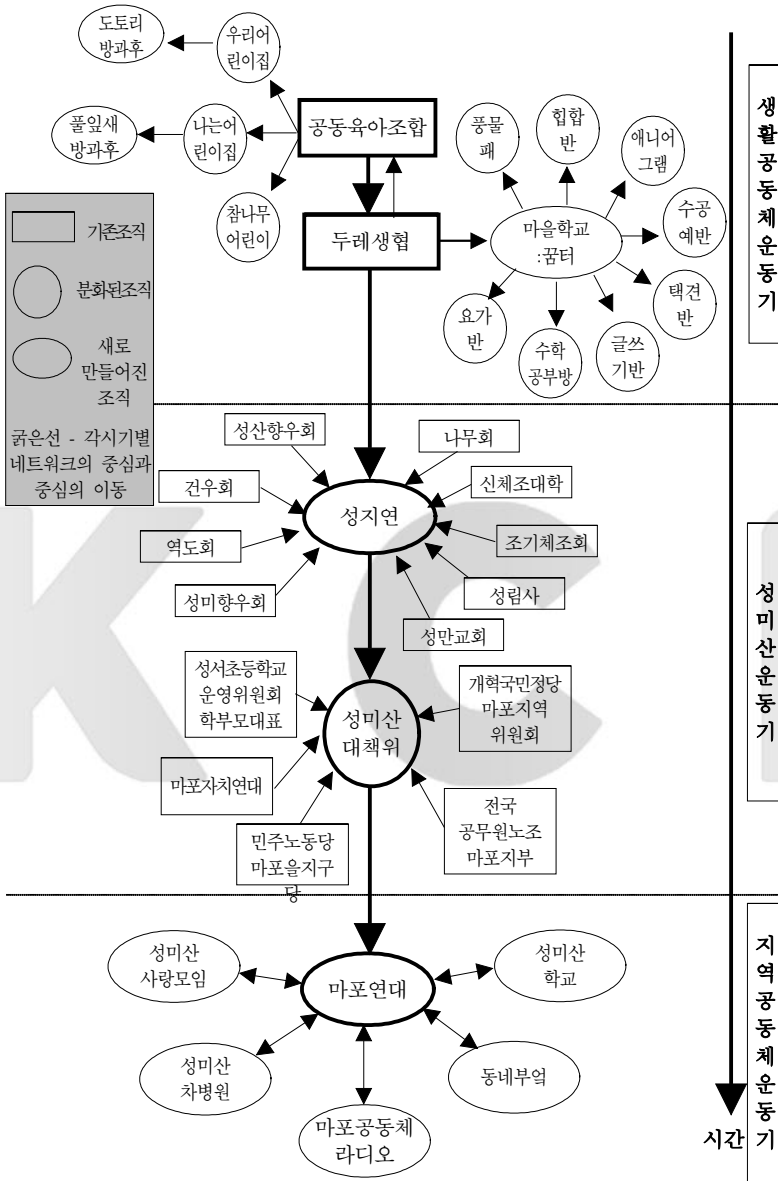
〈그림-3〉 이웃의 범위



〈그림-4〉 위급시 도움요청 이웃

조직적 수준의 네트워크는 생활공동체운동기에 형성된 조직을 토대로 성미산운동기에는 지역의 다른 주민조직들과 연계되는 네트워크가 활발해지고, 이러한 네트워크는 지역공동체형성운동기의 마포연대를 중심축으로 지속적인 운동을 벌여나가고 있다. 따라서 공동육아→두레생협→성지연→성미산대책위→마포연대의 순으로 운동의 중심이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 중심조직을 매개로 기존의 조직들과 새로운 조직들이 함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생활공동체운동기에 형성된 네트워크가 지리적으로 한정된 범위에서 형성되었다면, 성미산 운동은 마포구전체, 또는 그 이상의 단위까지 확대된 조직간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생활공동체운동에서 성미산운동, 그리고 지역공동체운동기까지 형성된 네트워크는 조직의 수가 증가하고, 그 범위가 확대되면서, 연계의 수준도 매우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5〉 각 시기별 네트워크 형성(조직적 수준)
(지역 내 조직간 네트워크만 표현)

〈표-8〉 네트워크 분석 결과

네트워크 형성	개인적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목도모 이웃의 수는 증가 · 어려운 부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웃과 돈독해지지는 못함 	
	조직적 수준 (그림 5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공동체→성미산운동→지역공동체로 흐를수록 연계되는 조직의 범위 확대 · 새로운 조직의 구성 · 외부전문가, 시민단체와의 네트워크 형성 	
네트워크 측정 결과 (개인적 수준)	Group 1	4.31	1순위
	Group 2	2.92	3순위
	Group 3	2.93	2순위

3) 사회적 규범

성미산운동을 통해 형성된 사회적 규범은 환경의식의 증진과 자치역량의 증대로 나타난다. 생활공동체형성운동을 통해 형성된 환경의식이 성미산운동을 거치면서 지역의 주민들과 공유하게 되었고, 이는 이후 성미산살리기운동으로 연장되게 된다. 이러한 환경의식을 그룹별로 비교해보면 더욱 확연히 드러나는데, G1의 경우 96%에 달하는 절대다수가 환경보호를 위해서는 돈과 시간을 모두 들일수 있다는 매우 적극적인 환경의식을 보여주고, G2의 경우 60%가 적극성을 띠는 반면, G3의 경우 33%정도만이 적극적 성향을 보여주었다. 또한 성미산운동을 계기로 지역의 주민들은 지역문제를 단순히 관에서 해결해 주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의식을 갖게 되었다. 이에 따라 관(마포구청)의 태도도 달라졌다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입장이다. 지역문제해결방법을 묻는 문항에서 G1의 경우 96%가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G2의 경우에도 80%가 비슷한 의향을 보였다. 그러나 G3의 경우 절반정도(44%)의 사람들이 관에서 해결해야한다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 성미산운동참여자와 비참여자간의 인식이 매우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성미산 운동을 하면서, 이전에는 지역운동을 하지 않으시던 분들도, 지역에서 힘을 모으면 뭔가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해요. 기존에 그런 분들 말고, 일반시민들도 마포연대, 지자체에 건의를 하면, 예를 들어 도로 안에 과속방지턱이 별로 없다, 아이들을 위해 그런 것을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뭐 환경적으로 여기에 뭐는 나쁘다... 뭐 이런 의견들 까지도 모아서 마포연대의 회원이라는 이름으로 지자체에 얘기를 하면 해결을 해주고...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많이 달라졌다고들 하세요. (지역주민 인터뷰 내용 중)

〈표-9〉 사회적 규범 분석결과

사회적 규범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집구성, 홍보물 발간 등의 공유로 인한 성미산의 생태적 가치 부각→환경의식의 형성, 증진 · 공동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한 경험→지역문제 해결의 지 높아짐→자치역량의 강화 		
사회적 규범 측정 결과	Group 1	4.57	1순위
	Group 2	3.78	2순위
	Group 3	3.30	3순위

5. 결론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성미산운동 즉 주민환경운동은 참여자간 신뢰를 구축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이를 통해 환경의식과 자치역량이라는 사회적 규범을 형성하는 등 사회적 자본을 증진시키는 과정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성미산운동의 과정이 이전의 생활공동체 운동에서 형성된 기반을 바탕으로 조직이 구성되고 참여가 강화되었으며, 전략적 방법에 있어서도 그 연장선상에서 있었다는 점, 그리고

생활공동체운동 구성원들이 축적하고 있던 사회적 자본의 수준이 일반 참여자들의 수준보다 매우 높았음을 볼 때, 생활공동체운동으로 형성되어 있던 사회적 자본에 주민환경운동이 많은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사회적 자본이 누적적으로 증진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사회적 자본과 주민환경운동이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는 생활공동체운동으로 형성된 사회적 자본이 성미산운동이라는 주민환경운동의 과정 속에서 더욱 증진되었으며, 이는 사회적 자본의 누적적 증진과정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원화 될수록 이익집단간 갈등이 첨예화되고, 그에 따라 야기되는 사회문제, 특히 환경문제 등을 해소하는데 사회적 자본이 크게 기여할 수 있고, 그 사회적 자본의 증진에 주민환경운동이 자리매김 될 수 있다는 실천적 함의를 갖는다.

사회적 자본의 기능과 효과는 매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대되지만, 무엇보다 시민사회와 실질적인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생활공동체운동에서 성미산운동, 그리고 지역공동체운동으로 이어지는 본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동안 축적된 사회적 자본은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참여율을 높이고, 문제해결의지를 강화시킨다는 점이었다. 이와 함께 다양하게 형성되는 여러 시민조직과의 네트워크 형성은 풍부한 시민사회의 형성에 디딤돌이 된다는 점이다. 현재 이 지역에서는 ‘지역공동체형성’이라는 공통의 목표 아래, 지역주민 복지향상 및 환경생태보전, 의정참여단구성 등을 통해서 다양한 지역운동을 실현시켜가고 있다. 다만 이러한 노력이 재정적 어려움, 관의 무관심한 대응 등으로 인해 그만큼의 성과를 얻지 못한다는 한계에 봉착해 있다.

사회적 자본의 증진 필요성은 누차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중요

한 것은 이렇게 증진된 사회적 자본을 사회에서 긍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본 사례와 같이 네트워크화 된 지역의 조직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과 함께, 지역의 문제해결에 있어 이들 조직을 활용하여 민과 관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거버넌스(governance) 구축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 구도완. 1994. “한국환경운동의 역사와 특성”,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용학. 2004. 『사회 연결망 이론』, 박영사.
- 김일태. 2001. “사회적 자본 증진을 위한 도시정부의 역할”, 『도시의 사회적 자본과 문화산업』,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
- 넌 린(Nan Lin). 2004. “신뢰의 사회적 맥락”, 『신뢰: 지구촌 시대의 사회적 자본』, 집문당.
- 마포연대. 2004. 마포연대 총회 자료집.
- 마포연대. 2004. 마포소리.
- 박찬용. 1999. “신뢰의 위기와 사회적 자본”, 『사회비평』 제19호.
- 서순탁. 2002. “사회적 자본 증진을 위한 도시계획의 역할과 과제: 접근방법과 정책적 함의”, 『국토연구』 제33권.
-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1997. 『수도정비기본계획』.
- _____. 1999. 『성미산 배수지 건설 계획 보고서』.
- _____. 2000. 『수도정비기본계획』.
- _____. 2002. 공청회 자료.
- 성미산을 지키는 주민연대모임. 2002. 성미산 생태공원 제안서.
- _____. 2003. 성산배수지 재검토 요청 자료집.
- 소진광. 1999. “사회적 자본형성을 위한 지역사회개발논리”, 『지역사회개발연구』 제24권 1 호.
- _____. 2003. “성남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 『성남발전연구』 제 3권, 경원대학교 성남발전연구소.

- _____. 2004. “사회적 자본의 측정지표”, 한국지역개발학회 학술세미나 발표 논문.
- 송태수. 2004. “경제활동과 사회적 자본”, 한국지역개발학회 학술세미나 발표 논문.
- 여성환경연대. 2004. 4월 월례포럼 녹취록.
- 유재원. 2000. “사회자본과 자발적 결사체”,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 논문.
- 이득연. 1998. 『환경운동의 사회학』, 민영사.
- 이병혁. 2001.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연줄망”, 『도시의 사회적 자본과 문화산업』, 서울 시립대 도시과학대학.
- 이재열. 1998. “민주주의, 사회적 신뢰, 사회적 자본”, 『계간 사상』 여름호.
- _____. 1996. “신뢰, 거래비용, 그리고 연결망”, 『한국사회학』 제30집 가을호.
- 이재혁. 1998. “신뢰의 사회구조화”, 『한국사회학』 제32집 여름호.
- 임혁백. 2000a. “신뢰와 민주주의”, 『세계화시대의 민주주의』, 나남출판사.
- _____. 2000b. “한국의 시민사회와 결사체 민주주의: 과거에 대한 성찰과 미래를 위한 비전 모색”, 『세계화시대의 민주주의』, 나남출판사.
- 정근식. 1991. “주민운동의 구조와 역할에 관한 비교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병두 · 이근행. 1999. 『주민환경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조건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연구소.
- 한국도시연구소. 2000. 『도시공동체운동의 현황과 전망』, 한국도시연구소 연례 심포지움.
- _____. 1999. 『도시에서 지역환경공동체 만들기 조사연구』.
- 한국도시연구소. 녹색서울시민위원회. 1999. 『도시지역 주민참여형 환경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사례 조사연구』.
- 환경운동연합. 2002. 성미산 배수지 건설 저지를 위한 공청회 자료집.
- Arrow, Kenneth J. 2000. “Observations on social capital”, in *Dasgupta and Serageldin (eds)*.
- Coleman, James 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Supplement) 94: S95-S120.
- Fukuyama, Francis. 1999. “The Great Disruption: Human Nature and the Reconstruction of Social Order”, *The Atlantic Monthly*, May.

- _____. 1995. *Trust: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New York: Free Press.
- Grootaert, Christiaan & van Bastelaer. 2001. Thierry, “Understanding and Measuring Social Capital: A Synthesis of Finding and Recommendations from the Social Capital Initiative”, Center for Institutional Reform and the Informal Sector(IRIS), *University of Maryland Working Paper* No. 24.
- Grootaert Christiaan, Narayan Deepa, Nyhan Jones Veronica, and Woolcock Michael. 2003. “Measuring social Capital: An Integrated Questionnaire”, *Socoal Capital Initiative Working Paper* No.18.
- Jenny Onyx, Paul Bullen. 2000. “Measuring Social Capital in Five Communities”, *The Journal of Applied Behavioral Science*.
- Knack, S. and P. Keefer. 1997. “Does Social Capital Have an Economic Payoff? A Cross-Country Investigation”,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Novemver.
- Mark Granovetter. 1974. *Getting A job: A Study of Contact and Careers*, Cambridge : Harvard University Press.
- Pierre Bourdieu. 1986. “The Forms of Capital”, in J. Fichardson, ed.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Westport, CT:Greenwood Press.
- Putnam, Robert D. 1994.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안청시 외 역. 2000.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 박영사).
- _____.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 and Schuster.
- Ronald S. Burt. 1997. “The Contingent Value of Social Capital”,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42.
- Tocqueville. 1968. *Alexis de, Democracy in America*. London: Fontana.